“미래 전력 신기술 한눈에” 빅스포 개막

미래 전력 신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빅스포(BIXPO) 2018’이 개막했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지난 31일 한전이 주관하는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빅스포)가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행사에 돌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4회를 맞은 빅스포는 전력기술의 최신 정보를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한전이 개최하고 있는 ‘국제 종합에너지박람회’다. 이번에는 에너지전환과 디지털 변환(Energy Transition&DigitalTrans formation)을 주제로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大)전환’을 자세히 살펴보고 미래 에너지산업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2018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BIXPO 2018)’ 개막식에서 김종갑 한전사장과 세계 에너지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참석자들이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국제발명품대전·VR 콘텐츠 시연·채용설명회
한전, 2일까지 DJ센터·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효성·지멘스·삼성 등 국내외 282개 기업 참여

오는 2일까지 3일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와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효성과 지멘스(SIEMENS), 제네럴일렉트릭(GE), 삼성전자, SKT 등 국내외총 282개 기업이 참여했다.

행사는 미래에너지기술을 선보이는 ‘신기술 전시회’, 160여개 발명품을 선보이는 ‘국제발명특허대전’, 48개 세션으로 나눠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국제컨퍼런스’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첫째 날 개막식에는 전 세계 50여개국의 에너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력분야 전문가 등 1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별강연으로 ‘THE DIGITAL TRANSFORMATION PLAYBOOK’의 저자이자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데이비드 L.로저스’ 교수가 ‘디지털변환과 미래 에너지 산업’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곧이어 ‘스마트시티 리더스 서밋(Smart City Leaders Summit)’에서는 국내외 16개 도시 시장과 부시장, 기업, 정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스마트시티 교차 시험장 구축’을 주제로 스마트시티 현황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둘째 날인 1일에는 지난해의 CTO포럼 수준을 한단계 높인 ‘에너지 리더스 서밋(Energy Leaders Summit)’이 진행될 계획이다. 해외 45개국 100여 명의 전력에너지 분야 CEO와 CTO, 임원, 연구기관 전문가,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전력산업에서 디지털 변환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이뿐 아니라 가볍게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행사기간 중 곳곳에서 운영된다. 행사장 내부에서는 가상현실(VR) 콘텐츠 시연, 에너지밸리 일자리박람회, 전력분야 공기업 채용설명회가 진행된다.

개막 첫날 ‘희망·사랑 나눔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시작으로 버스킹 페스티벌, 브런치 뮤직박스, 가면끼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야외공연도 펼칠 예정으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와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빅스포 2018을 통해 전력기술에 대한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에너지전환과 디지털 변환의 첨단기술을 확인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29.69 (+15.00)	↑ 금리 (국고채 3년)	1.94 (+0.01)
↑ 코스닥	648.67 (+4.53)	↑ 환율 (USD)	1139.60 (+0.40)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 본격화

사업 인가…48만㎡ 아파트 4대 단지 51개동 4732세대

광주지역 대형 재개발지구인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지난 31일 국토교통부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신가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재개발을 추진중이다.

신가동 주택재개발은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842-6번지 일대 48만3821㎡에 아파트 4732세대(연면적 73만7445㎡)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가동 주택재개발 사업은 4개 단지(1단지 1401세대·2단지 1154세대·3단지 1383세대·4단지 794세대)로 나누어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51개동을 짓는다.

임대아파트(전용면적 39.99~42.99㎡) 403세대를 비롯, 전용면적 59㎡부터 84~156㎡규모의 중·대형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다.

정비사업조합은 앞서 시공사로 대형 건설사 대림산업·GS·롯데·SK건설·한양 등이 참여하는 빛고을드림사업단을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신가동 주택재개발사업 허가로 올해 3분기 광주지역 건축(아파트) 허가 면적은 74개동(연면적 61만9011.9㎡)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분기 아파트 허가 면적은 28개동(연면적 29만7031.6㎡)에 불과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신가동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관리처분 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께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작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한 3879만500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모의 크라우드펀딩 대회 성료

한국예탁결제원, 벤처기업 4곳 우수기업 선정

광주·전남지역 유망 창업가들을 위한 모의 크라우드펀딩 대회가 광주에서 열렸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 광주지원은 최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2018년 하반기 광주·전남 모의 크라우드펀딩 대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대회는 광주·전남 유망 스타트업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광주과학기술원 창업진흥센터 등 10개 단체로부터 벤처기업 15개사를 추천받아 역량강화 교육과 멘토링을 실시, 해당 기업으로부터 IR자료를 제출받는 절차를 거쳐 서면심사를 통해 8개사를 선정했다.

1차 선정기업 8개사의 IR 발표내용을 토대로 온라인중개사, 펀딩성공 CEO 및 벤처캐피탈로 구성된 전문평가단,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 등의 현장평가를 거친 뒤 최종 4개사를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평가결과 우수기업으로 클라우드스톤(대표 김민준), 한국해양바이오클러스터㈜(대표 김현모), ㈜모두앤모두(대표 한승룡), 케르베로스(대표 김융) 등 총 4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우수기업에게는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표창과 총 1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 관계자는 “선정된 기업들이 실제 크라우드펀딩에 착수하도록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크라우드펀딩 설명회와 모의 크라우드펀딩 대회를 개최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2019년 부동산 전망은

첨단 와이어스 지식산업센터
오늘 무료 특강 100명 한정

첨단 와이어스 지식산업센터는 1일 오후 2시 ‘2019년 부동산 전망과 재테크 성공전략’ 무료 특강을 연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지역 부동산시장 환경을 살펴보고 재테크 노하우를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정영수 한국생산성본부 강사와 김형선 경기대 교수가 나서 올 해 달라진 부동산 정책을 비롯, 내년 부동산 전망과 투자 노하우를 전한다.

좌석 등을 고려해 100명만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부동산경매 사이트 2개월 무료 이용권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본부세관, 사회적 기업 등 초청 ‘세관 문화의 날 행사’ 열어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난 31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관 문화의 날 행사를 가졌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후두기 생산업체인 ‘목소리’, 유기농 과자를 만드는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등 15개 업체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정보가 부족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문화 공간으로 초청해 현재까지의 기업지원 정책을 뒤돌아 보고 지속적인 성장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화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업체 대표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관련된 사안에 대해 현장에서 기관별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주시경 광주본부세관장은 “다른 부처 업무라도 해당기관 담당자와 직접 연결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다”며 “오늘 행사가 유관기관들과 함께 업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민을 해결하는 자리여서 더욱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7월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장애인·사회적경제 기업 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생산업체와 청사 공무원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창사66주년 광주일보